

복지사회에 있어서의 도서관 조직(1)

김 세 익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A. 머릿말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복지를 위주로 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특별히 정책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정치나 사회정책의 기본원리로 삼는 나라를 복지국가 혹은 복지사회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大企業)이나 대단위 중요산업의 국유화 누진과세(累進課稅) 완전고용(完全雇用) 실업보험(失業保險) 건강보험(健康保險) 저렴주택(低廉住宅) 노후보장(老後保障) 국민연금(國民年金) 등의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사회가 복지사회다.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며 스칸디나비아 3국 스위스 독일등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은 대체로 복지사회라고 불리워진다. 특히 모범적인 복지국가인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아에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며 또한 그 도서관의 조직이나 그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개발도상국가의 선두에 선 우리 나라의 도서관 발전의 참고로 삼고자 한다.

B. 영국 사회의 도서관 기능

영국 같은 선진사회에서도 우리가 도서관사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도서관이 일반대중을 위하여 존재하게 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 부터다. 17세기 초기에 즉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영국의 영토 확장 해외무역의 증대 또한 산업발달에 따라 그리고 교육의 발전이 눈부시게 되자 몇군데의 산업도시에 도시 중심의 도서관이 생기고 과거 봉건사회의 상징이었던 사원(寺院) 교회도서관이 일반민중에게 개방되는 이른바 교구(教區) 도서관(Parish library)이 생겼다. 그러나 그와 같은교구도서관의 장서가 대부분 그리스도교 관계의 종교서적이었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은 보편적인 독서를 갈구하게 되어 대출도서관(Circulation Library)을 낳게 하였다. 이름이 도서관이지 사실은 하나의 대본(貸本) 집에 불과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이른바 조합도서관(Subscription Library)을 형성하면서 19세기를 맞이한다. 영국의 하원 의원인(William Ewart, 1798—1869)의 유명한 Ewart Bill을 근거로 하여 1850년에 드

디어 도서관법(Library Act)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지금까지 조합도서관처럼 조합원의 사비(私費)로 도서관이 운영되던 것이 국가적 지원을 받는 공비(公費)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서 영국에서는 도서관이 하나의 국가적 관심에서 사회구성이나 조직상의 뚜렷한 기구(機構)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1877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영국 도서관협회(Library Association)가 결성되어 영국도서관이 비약의 단계에 오르게 된다.

1. 시립도서관의 봉사

영국에 있어서의 시립도서관은 우리 나라의 시립도서관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며 이것을 우리 나라식으로 보면 시·군·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근본적으로 영국 전 국민중 한 사람도 도서관 봉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철저한 복지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행정구역에 단위별로 본관이나 분관을 두고 있다. 인구 4~5만의 작은 도시에서는 2~4관의 분관 인구 수십만의 대도시에서는 수십개의 분관(Branch Library)을 가지고 있다. 분관중에서도 큰 것은 장서 100,000권 이상을 소장하고, 1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소분관에서는 10,000권 정도의 장서에 2-3명의 전문사서가 일하고 있다. 그대신 아주 작은 분관은 Part-time Branch Library라고 하여 한주일에 몇일만 개관하거나 하루에 몇시간만 개관하고 있는 곳도 허다하다.

이런 분관은 장서수 1,000권 정도에 1명의 사서가 있거나 1명씩 본관에서 교대로 출장나와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영국 국민들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구가 적어서 하루에 몇 사람밖에 오지 않는데 하루종일 개관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영국에서 시내 버스를 타보면 구역마다 버스 값이 다르다. 즉 거리에 따라 값이 다르다. 우리 나라의 기차값과 같다. 피차에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합리적인 방법이요 이치에 맞는 일이다.

그 외에 이동도서관(Mobile Library)을 가진 도서관도 있으나 그것도 하나의 움직임은 분관이다. 어쨌든 영국사회에 있어서의 도서관은 주민 모두에게 빠짐 없

이 도서관 봉사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에 제1차적인 목적과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행정적인 권한과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Council)에 있다. 이 의회안에 여러가지 전문위원회(Committee)가 있는데 도서관관계는 도서관위원회(Library Committee)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라 할 수 없다. 교육은 교육위원회, 치안은경찰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본관 분관 할것 없이 장서수는 원칙적으로 지역주민 1인당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대체로 잘 실현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영국의 시립도서관(본관 분관 이동도서관)에 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무리 작은 마을의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비록 건물의 크기는 보잘것 없지만 도서관 다운 건물 즉 도서관건축학의 이론에 어긋나는 도서관 건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곧 도서관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도서관 내부시설도 규모는 작지만 모두 제대로의 도서관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다. 즉 대출대이며 서가며 잡지서가 참고실 모두 규격에 맞고 도서관 다운 세련된 무드를 느끼게 한다. 또한 장서구성의 생생한 점도 인상적이다. 이용되지 않은 책, 너무 남아서 불품이 없는 책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즉 신진대사의 속도가 빠르다 극소수의 특수한 자료외에는 전부가 완전개가제 즉 자유접가식으로 되어 있고 입관료를 내는 법도 없고 소지품을 카운터에 맡기는 일도 없이 누구나 자기 집 드나드는 식으로 도서관을 출입한다. 도로에서 문만 밀고 들어가면 대출대고 서가이기 때문에 아무 육체적, 심리적 부담도 없다.

이것이 만약 2층이나 3층이거나 지하실이라면 또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연령이나 직업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여 도서관이 시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시장 바구니를 든 아낙네들, 허리가 꾸부러진 노인들, 어린이들, 할것없이 모든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영국의 도서관은 「관가나단」의 Books are for all의 사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자료 정리법도 실용성과 합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영국의 시립도서관—만체스터나 비바를같은 큰 도시의 시립도서관이 아닌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는 듀이십진분류표가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강서 10,000권이나 50,000정도의 소도서관에서는 DDC가 가장 적당한 분류표이기 때문이다. 저자기호나 권책번호(卷册番號) 같은 것은 쓰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소설류는 Fiction 서가에 배열하고 레이블조차 붙이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하기에는 저자기호가 없거나 권책번호가 없으면 같은 주제의 책이 같은 곳에 모이기는 하나 그 순서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거나 소설같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레이블이 없으면 서가상의 혼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지만 영국의 도서관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 서가상의 책의 배열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데에는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세계의 어느 나라 도서관 보다도 대출부수가 많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정리 그 자체보다 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 이용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도서관의 크기와 장서수 이용자수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도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이점에 구애되어서 정리를 위한 정리에 너무 많은 사서들의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우도 생긴다. 목록편성은 미국과는 달라서 사전체목록보다 분류목록 체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원래가 사전체 목록이론은 미국에서 1876년에 커티에 의해 개발되어 미국에서 보편화된 것이고 구라파에서 옛날부터 분류목록이 목론 이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구라파에서는 의외로 사전체목록이 발전되고 있지 않다. 사실 이화대학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도서관의 목록편성이 사전체—양서는 저자, 서명, 주제명의 혼합배열이고 동서는 저자와 서명만의 혼합배열이다—와 분류 두가지가 있는데 사전체목록보다 분류목록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더 편리할 것 같은 사전체목록이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사전체목록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분류목록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국 도서관의 또 하나의 특색은 관내 열람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고 오로지 관의 대출만을 서큐레이션의 패턴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작은 도서관에는 열람책상이나 의자는 하나도 없고 다만 서가와 대출대만 있는 도서관이 허다하다.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으로 확인만 되면 그 자리에서 그 도서관에 등록된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이들은 부모의 보증으로 우리같은 외국인은 주민의 사인으로 등록이 되어 언제나 책을 빌릴 수가 있다. 대출책수도 한번에 3권 내지 8권정도 어떤 데서는 전연 책수에 제한없이 빌려준다. 대출기한은 4주간

이 보통이지만 연기도 된다. 도서관에 출두하지 않고서도 전화로 연기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연기 된다. 대출방식은 대체로 부라운방식을 쓰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멜빌 듀이」라고 불리워지는 「제임스 부라운」이고안해 낸 대출방식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기입식보다 시간이 적게드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도서관의 기계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미국처럼 사진식(寫眞式)이나 펀취카야드(Punched Card) 방식이 점차로 유행해 가는 경향이 있다. 영국에서의 도서대출 부수의 비율의 평균치는 주민인구의 10배로 보고 있다.

즉 일년간 주민의 총인구가 50,000이라면 대출부수는 100,000부로 보고 있다. 인구 5,000정도의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도 1년간 대출된 책수는 50,000이된다는 계산인데 이것은 놀라운 숫자이다. 또한 영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크고 작고 간에 음반(Record)의 수집이 많아서 이것도 주민들에게 대출된다. 보통 1회에 1~2매 대출하고 1~2주간 기한으로 사용케한다. 만약 음반에 흠이 생긴다거나 파손되면 약간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주민들도 「푸레이어」만 가지고 있으면 도서관에서 빌린 레코트를 자기 집에서 언제나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 본관이나 분관에는 음악실의 시설이 있어서 주말이 되면 저녁에 그곳에 모여서 레코트콘서트를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은 참으로 복지사회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입장은 무료이다.

영국 공공도서관의 또 하나의 특색은 어느 도서관이건 아동실이 있어서 아동에 대한 봉사가 철저하다. 그 지방의 학교도서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료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공공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에 대하여 많은 원조를 해 주고 있다.

좀 큰 도서관에서는 이 아동실뿐만 아니라 청소년부가 있어서 「틴에이저」들을 위한 자료를 구비하고 그들의 교육과 선도에 도서관이 앞장서고 있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다. 특히 아동실에서는 어린이들의 독서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집회소도 있어서 아동극이나 영화감상회, 이야기회, 음악감상회 같은 것도 하고 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한 봉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 모여진 그림의 대출도 하고 있다. 그림은 대체로 명화의 모사나 그 지방의 화가들의 원화가 있는데 이것이 액자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출해 간 사람은 대출기한 동안—대개 1~2개월—자기집 벽에 걸어놓았다가 기한이 되면 다시 반납하고 다른 그림을 대출해서 벽에 걸곤한다.

도서관은 이렇게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서생활에도 봉사하고 있다. 다소 큰 도서관에는 참고실이 완비되어 있어서 유능한 참고사서가 배치되어 연구조사에 대한 봉사에 종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방제(地方制) 속에 도서관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기가 비교적 쉽기는 하나 영국의 방방곡곡에서 빠짐 없이 도서관 봉사가 침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복지사업에 도서관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외에 County Library의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립도서관의 경우와 같은 것이기는 하나 그 행정적인 조직과의 관계와 그 봉사의 방식이나 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영국도서관의 특징의 하나인 County Library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장학기금 모금현황

대전동중학교도서관	4,000	상공부도서관	4,000
안성농업고전문교도서관	4,000	충북대학교도서관	4,000
경기공업고전문교도서관	4,000	신라중학교도서관	2,000
경북중학교도서관	2,000	마산제일여고도서관	4,000
서울중로시립도서관	6,000	단국대학교도서관	4,000
인천시립도서관	2,000	소 계	46,000
서울대학교도서관	4,000	전원 누계	570,257
서강대학교도서관	2,000	(12月 25日現) 총 계	616,251